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

“....기도 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 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골로새서 4장 3절]

NO	대상자명	관 계	구체적 전도방법	영적수준	비 고
1					
2					
3					
4					

수준1) 결신할 수 있음 수준2) 복음에 대하여 열려 있음 수준3) 전도자에 대하여 열려 있음
수준4) 기독교에 대하여 알지만 부정적임 수준5) 기독교에 대하여 전혀 모름

가정교회를 위한 기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19절]

NO	성 명	기도제목
1		
2		
3		
4		
5		
6		

교회를 위한 기도

- 한 기흥 목사님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선교사님들의 GMI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교회와 사역/행사를 위하여
 - 4차 일천번제 특별 새벽기도회(1/22/2024~10/17/2026)
 - Worship Conference(7/18~20 2:00pm) - 목사 부흥의 밤(7/22, 8:00pm)
 - 신약전체 통독(7/26, 7:00am~7:00pm)
 - 한여름 성령집회(8/7~10, 강사: 문강원 목사) - 예수모임(8/14)
 - 신생아 축복기도(8/17, 3부 예배 시) - GTD 209 남자기(8/24~27)
 - 2025 성경통독 및 퀴즈대회(8/30 단체 및 개인전 필기 시험, 8/31 개인전)



가정교회 예배안 2025. 7. 20

7월 셋째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 (창세기 39:1-6)

■ Welcome

친한 친구와 함께 했던 아름다운 추억을 나누어 봅시다. 또한 지난 주의 Grace Time을 통해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를 나누어 봅시다.

■ 본문: 창세기 39:1~6

1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2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4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5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6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 서론

세상을 살아가며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느냐는 육체적인 면뿐 아니라 영적인 면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자랐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는 살인자요 도망자가 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이 되자, 그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다.

(출애굽기 33:11)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라고 불린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 곁에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를 보며 배웠다. 마침내 그는 모세의 사역을 계승하여 가나안을 정복하는 위대한 사명을 이루게 되었다.

오늘 본문의 꿈 많은 청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지만, 형들의 시기과 미움으로 인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간다. 이후에는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된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엔 철저히 무너진 인생이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가리켜 “**형통한 자**”라 말한다(2~3절).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태이다. 진정한 축복은 내가 원하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데 있다. 형통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

■ 관찰 질문: 요셉처럼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려면?

해답 1.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체질이 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고난 속에서 다듬어지고, 깨어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체질로 바뀌어 가는 영적 여정이다.

요셉의 삶이 그 생생한 본보기다. 그의 형들의 시기와 미움 속에서 채색 옷이 찢어지고 벗겨지는 고난이 찾아왔고 결국 낯선 땅 애굽에 종으로 팔려간다. 그는 이방 땅에 홀로 내어 던져졌다. 거기에 더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피난처였다.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직접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삶의 열매를 통해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았음을 알 수 있다.

평생 자신의 괴로움 살아가던 야곱도 마찬가지다. 그는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압박강가에 홀로 남아 두려움에 떨며,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밤새 씨름하며 부르짖었다.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시면 놓을 수 없습니다.” 기도 중 환도빠가 부러지는 아픔을 겪었고, 그는 완전히 깨어졌다. 그때 비로소 야곱은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자기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것이다.

시편 42편은 말한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은혜 입은 사람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시대는 혼란스럽고 어두우며 세상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에 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는 휩쓸리지 않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 적용 질문 1

- 1) 삶에서 다른 사람의 모함으로 인생의 웅덩이 던져졌던 힘든 경험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 2) 야곱처럼 압박강에서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내가 결단할 것은 무엇일까?

해답 2.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터득하라(2절).

2절에서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므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한다. 요셉은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 요셉은 순간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랐다. 그래서 그의 삶은 형통했다.

바울도 고난이 많았던 사도였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의지하면 채워주신다는 것을 경험하였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였다.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빌립보서 4:11-12)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궁핍과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셨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 습관을 좇아 늘 기도로 앞두셨다.

(예레미야 17:7-8)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찌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그 삶은 반드시 형통하게 된다.

❁ 적용 질문 2

- 1)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 것에 대해 나누어 보자(말씀, 기도, 감사, 찬양의 삶)
- 2) 나는 특별히 어느 부분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터득하기 원하는가?

해답 3.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넘어 복종하라.

요셉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39:9)”라며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죄를 이길 수 있었다.

순종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고, 복종은 하기 싫은 일까지 따르는 것이다. 요셉은 복종을 선택하였기에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전적인 복종을 기뻐하신다. 복종이 있을 때 형통도 따라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복종의 본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시고 싶었지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라며 복종하셨다.

(빌립보서 2: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종의 삶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 신앙생활은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그러나 순종조차 어려울 때가 많다. 그래서 복종이 필요하다.

❁ 적용 질문 3

- 1)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간증을 나누어 봅시다.
- 2) 말씀을 받고도 순종이 안되게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서로 나누어 봅시다.
- 3) 순종을 넘어 복종의 삶으로 나아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함께 기도하자.